朝鮮日報
第二夕刊
一日(水)
本紙朝夕刊十二面

英佛의大戰態度非難
獨蘇親善을强調
蘇聯外交政策大轉回

【莫斯科卅一日發同盟】今次歐洲大戰勃發以來 最初의 蘇聯第五次最高會議는 卅一日夜 크레믈린宮에서 開會劈頭모로토프外務人民委員은 歐洲大戰勃發로蘇聯의 外交方針에重大變化가일어낫다고 重大外交演說을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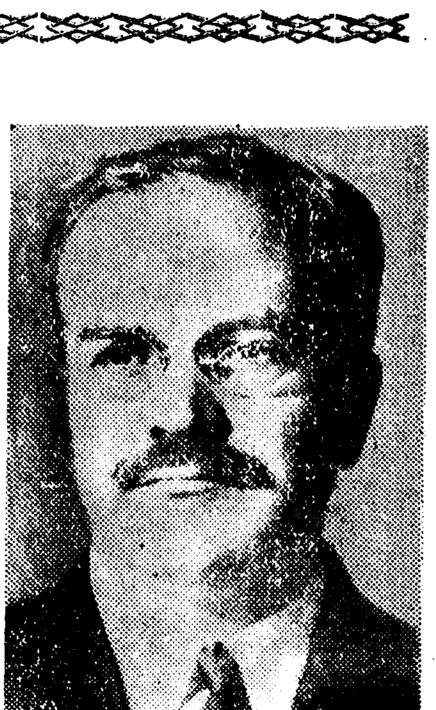
【莫斯科卅一日發同盟】모로토프 外務人民委員은 卅一日夜 第五次蘇聯最高會議의劈頭에 約一時間半이나 刻下의 大戰에 處한蘇聯의 新外交方針을 闡明하엿는데 모로토프外相은 特히 今次大戰에 對한 英佛의 態度를痛擊하는一方 獨逸과의 親善을 强調하여 左와如히 述하엿다

最近 二個月間에 國際政局은 重大變化를 하엿다 我等이 從來使用해오던『公式』은 即『侵略』『侵略者』란말은 벌써 無意義가 이제는 陳腐化하여 現狀에는適用되지안는다 되엇다 獨逸은 戰爭의 終結을바라고잇는데 反하여 英佛은 戰爭繼續을 圖하고잇다 英佛側의 自己辯護論은 矛盾撞着이되어잇다 波蘭은 베르사이유條約이나흔 畸形兒이다 따라서 波蘭을 回復함은 不可能하다 英佛兩國指導者들은 我等을 戰爭에 이끌려고한다 그러나 이가튼 戰爭을 民主主義擁護를 爲한 鬪爭이라고 僭稱함은 罪惡이라고 斷定치안흘수업다

다음에 모로토프委員은 蘇聯의 地位强化를 自讚하고 今番戰爭에 對한蘇聯의 外交方針을 如左히 闡明하엿다 我等은 蘇聯의地位와 國際的勢力을 顯著히 强化增大함에 成功하엿다 我等은 今後蘇聯의 外交方針으로서

一、行動의 自由를 保持할것 一、中立을 維持할것 一、戰爭을 擴大援助치안코 그 阻止에努力할것

等三點을 遂行하려고 한다고말하엿다(寫眞은 모로토프外相)



모로토프外相重大演說

日蘇國交도調整
停戰協定成立으로親善에曙光

【莫斯科三十一日發同盟】모로토프外務人民委員은 三十一日 蘇聯最高會議에서의 外交演說中對日關係에關하여다음가치述하엿다 外蒙國境의衝突로 日蘇兩國은 雙方이모다不少한 損害를입엇는데 드디어 過日停戰協定의成立으로 戰鬪行爲는停止될에이르럿다 이것을契機로 兩國關係改善의 曙光을보게되엇는데 日本側이 如何히速히 또는如何한程度로 兩國關係의根本的改善을 하려고하는것은 아직明瞭하지안타 그러나 蘇聯側으로서는 언제라도 交涉할意思를 가지고잇다

對芬要求闡明

【莫斯科三十一日發同盟】모로토프外務人民委員은 三十一日第五次蘇聯最高會議에서의 外交演說中 蘇芬交涉의經過와 現狀에關하여 左와如히述하엿다 蘇聯政府는 左記條項으로되는 新提案을 目下芬蘭政府에 提案中이다

一、芬蘭灣에面한 芬蘭領島若干의讓渡
一、레닌그라드北方의 蘇芬國境을 二三十키로더北方에옴길것
一、芬蘭灣에面한 芬蘭海岸에蘇聯은 條約에依하여若干의領土를 賃借하여 海軍根據地를設置할것
一、右代償으로서 蘇聯은 카렐리아地方을 芬蘭에割讓함

空軍偵察活潑

【巴里三十一日發同盟】三十一日 前線에서는 飛行機의 偵察에依하면 三十一日은 오래간만의好天으로 戰況은 俄然活潑化한모양으로 大要如左히 傳하고잇음

獨空軍은 三十一日好天氣를 利用하여 開戰以來처음으로我領土上空에 廣範한 偵察飛行을 決行하엿는데 其中一機는 我地上砲火에 依하여 擊墜되고 他數機는 損傷을 바든모양갓다 一方我空軍도 同時에 獨軍戰線과 그背後地一帶에亘하여 大活動을하엿는데其前後七回나 遠距離偵察飛行을 敢行하고 全機無事基地에 歸還하엿다 이에反하여 敵空軍部隊의活躍은 猛烈한 我地上砲火集注와 戰鬪機群의邀擊을만나 모다不成功에 歸하엿다

獨軍、佛領에侵入
佛國境都市를猛砲擊

【伯林三十一日發同盟】獨軍司令部는 三十一日獨軍前哨部隊가獨佛國境을넘어 마지노線前方을偵察한結果를 發表하엿는데 右는獨軍이佛國領에進入한 最初의뉴스이다 國境突破의地點은 公表되지안핫스나 前線의獨軍이 佛軍에對하여 哨戒線의直後의 第二防禦線에進入하여 佛軍이未完成대로抛棄한塹壕를 發見하엿다고하다 獨軍이進入한것은 佛軍이急히退却한 證左로보인다 機關銃其他武器를 發見하엿다고하다 그리고一哩를隔한 部落에들어갓스나 村人도佛軍兵士도 보이지안코 砲擊도받지안햇다고하다

【巴里三十一日發同盟】獨逸의攻勢態勢에따라 獨佛國境의 戰鬪는 이더욱本格的調子를 띠게되엇는데 三十一日巴里에達한 戰況報에依하면 三十一日의 戰況은 如左하다

三十日獨逸軍은 再次砲擊을加하여 國境線內十哩地點에잇는 佛國都市는 獨軍으로부터 砲擊을바덧다 一方獨軍用機는盛히越境하여왓는데 佛軍도高射砲로써이에 應戰하엿다 國境線內百六十키로地點에서 侵入한一機를擊墜하엿는데 他에도佛國領內에獨軍用機數機가 擊墜된것이라고하다 又左記三地點에서 活潑한地上戰鬪가잇섯다

一、롯셀부르附近의 모젤溪谷
一、여게서부터 東方六十四키로의 자르브뤽켄近郊
一、자르브뤽켄東方브리스河沿岸

그리고 이戰鬪中의 佛軍은 獨逸兵二名을 捕虜로하엿다고하는데 佛軍의 損害는 兵一名이行方不明이되엇다고 傳하고以外發表되지아니햇다

獨飛行機偵察

【巴里卅一日發同盟】佛軍最高司令部에서는 西部戰線의 戰況에 關하여 다음가치 發表하엿다 모젤河와자르河間에서 攻擊偵察의 獨逸飛行機는 敵空間에亘하여 來襲하엿스나 佛空軍의反擊에依하여 獨逸偵察機(戰鬪機)一機는 佛戰線에擊墜되어 二機는 자르地方의獨逸陣地에서擊墜되엇다

伊希兩國間에 不可侵條約交涉

【倫敦三十一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通般希臘國境으로부터 伊太利兵을撤退하여 對希友好態度를 表明하엿는데 三十一日倫敦에 達한情報에依하면 伊希兩國은 羅馬及 아테네兩首都에서 各各 伊希不可侵條約締結에關하여 折衝中이라고한다 그런데英國外交側에서는 右報道를歡迎하여다음가치 말하엿다 伊希不可侵條約締結이 企圖되고잇다는報道는 最近兩國이此種伊希接近交涉을行한 事實에徵하여 今回伊希不可侵條約의 締結은 一九二八年締結의 伊希友好條約을 再確認한것으로 說明할수잇는것이다

知事會議總督指示事項

內務局主管
一、地代家賃統制令의實施에關한件

昭和十四年十月十六日勅令第七百四號로써 地代家賃統制令이公布되고 十月二十七日부터 그施行을보게된바 右는家賃及土地家屋賃貸의現代에對하여 朝鮮에잇서서는 昨年十二月三十一日現在의額을基準으로하고 緊急必要한 統制를行하고저함에잇는바 本件에對하여는 일즉通牒으로써 地代家賃의騰貴의趨勢가 漸次로 顯著케되려하는 昨年十二月三十一日現在에잇서서의 地代家賃으로써 最高額으로하고 地主家主의 自制에 依하여 그 以上의 値上을 하지안코또 그後새로히 定한바에對하여도 右趣旨에 則하여되도록 이것을低廉케 定하도록 事變長期化에 對應하여 民生活의 安定을 期하고 國民經濟의 運行을 確保키爲하여는 一般物價의 騰貴抑制와 並行하여 地代家賃에 對하여도다시 强力統制를 加하여 關係官民의 理解와 協力을促進하여써 本令의運用上 遺憾이업도록期할것이다

二、賃金臨時措置令實施에關한件

昭和十四年十月十六日 勅令第七百五號로써 賃金臨時措置令이公布되고 十月二十七日부터 그實施를보게된바 右는戰時經濟의 運營과 國民生活의安定을 確保키爲하여 商品의生産及 流通에 影響잇는 賃金의騰貴를 抑止할 必要가잇슴에 鑑하여 雇傭者에잇서는 勞務者의賃金을 競爭的으로 引上함과如한行爲를 防止하려하는 趣旨이므로 各位는잘勞務賃金의 國民經濟에 占有하는 重要한地位에비치어 本令의 趣旨를 널리管內에 周知徹底케함과同時에 雇傭者의 指導에 努力하므로써 所期의效果를 收得하도록 本令의運用에 萬遺憾이업도록期할것이다

財務局主管
三、會社職員給與臨時措置令施行에關한件

物價安定의 緊急的措置의 一方法으로서 今般國家總動員法第十一條의 規定에基한 會社의經理에關한 命令中職員에對한 給與에關하여 會社職員給與臨時措置令이 公布되엿고 同令施行規則과함께 十月二十七日로부터 施行되엿는바 本令施行에依하여 資本金二十萬圓以上의 會社及資本金二十萬圓未滿의 會社에잇서서는 職員數常時三十人以上의 會社는 賃金臨時措置令第三條의 賃金을 受할勞務者를除한 職員에對한 一切의給與支給에對하여 制限케되고 給料手當에對하여는朝鮮總督의 承認又는 許可를受한支給準則에 依하는外에 原則으로서이것을 增給또는 새로히支給함을 不得코 또賞與에對하여는 原則으로서 前年相當時期에 支給한 限度內가아니면 이것을支給치못하게되엿다 또本令施行에關한 事務의一部는 會社內部의 事情에精通한 稅務官署로하여금 取扱케하고 提出書類는 다稅務官署를 經由케되엇는바 本令의適用을 밧지안는 官下官公署其他의 法人事業場의 給與에 對하여는 該當官에잇서서 本令의 趣旨에 依하여 適當한給與의 支給을抑制하도록 適當한措置를 講求할것이다

殖産局主管
四、價格等의統制에關한件

物價騰貴의抑制는 時局下經濟對策의 中心이되는것으로서 現下內外諸情勢에 適應하여 그統制强化를 期함必要가 緊切함에 鑑하여 國家總動員法第十九條에 基한 價格等統制令의 施行을보게된것이다 本措置는 戰時下經濟政策에 即應한 緊急한措置라할것이나 以後生起할 各方面에 ...

(一) 公定價格制의擴充 價格等의 一般引上停止의施行期間은 一年에限定케되엇스므로末에 可及的으로迅速히適正한公定價格을設定할方針이며 地方廳에對하여는 從來와가치 標準價格通販賣價格等을通牒할것으로써 이것에依하여 價格等의公定에努力할것이오 또 地方廳에 잇서서는 積極的으로 價格을公定할 必要잇는 會境遇에는 總督府와 協議한후善處할일

(二) 協定價格의認可 商工農業者等의 組合等에 잇서서의 協定價格으로서 行政官廳의 認可를어든것은 이것을 指定期日(九月十八日)의 價格으로 看做키로되엇는바 右는 暫定的으로 指定期日에잇서서의 價格 ...

農林局主管
五、旱害地帶農耕牛保留에關한件

旱害地帶農耕牛의保留에關하여는 旱害地帶農耕牛의保留를 期하여 多幸히 對策을 講究하여 ... 今日에至하엿는바 또年末決濟期에잇서서의 放賣를抑制하고 明春의 耕作에支障업기를 期함과同時에 다시 나아가 食肉의消耗를 防하므로써 銃後食糧充實에遺憾업 ...

六、旱害對策土地改良事業施行에關한件

今年의 旱害救濟事業으로서 實施한 土地改良事業은 罹災各道에 亘하여 그規模가 大하다 또 工事施行의 期間이 極히 短縮되어 ... 職員의 能力에 比하여 相當히 過大한바가잇다 ...

七、旱害救濟砂防工事及林道工事에關한件

旱害救濟事業으로 砂防工事及林道工事를 實施케되엇는바 ...

遞信局主管
八、船員給料臨時措置規則制定의件

會社職員給與臨時措置令及 賃金臨時措置令의 施行과 同時에 船員中 會社職員의身分을가진 所謂高級船員에對하여는 船員給與臨時措置規則을 適用코 普通船員에 對하여는 ... 昭和十四年九月十八日現在의 給料及手當等을 一時網에制限하고 ... 指定期日에잇서서의 賃金의 基本給、賃金基準及昇給內規의報告等을하게하고 또이것을變更하려하는境遇或은 臨時賞與를 支給하려하는境遇에는 許可를要케되엇다

本令은 國家總動員法에基한 統制諸法令의 一環으로서 相互聯關된다는 故로 道知事의 所管外에 屬한다할지나 이것의 趣旨周知徹底에對하여는 特히配意할것이다

電氣調整令에關한件

電力調整令은 他統制諸法令과 同日時로써 今回그施行을 보게된바 朝鮮實情은 內地에比하여 아직 그것을 發動할만한 急迫狀態에 이르지안햇다하지라도 物動計畫、生産力擴充計畫等의 進捗과 同時에 不遠間全面的發動을 하게될것이므로써 미리 一般民衆의 理解와 自覺을 促進하여둘 必要가잇서 將來本法令의 圓滑한 運用과 그重要性의 認識徹底에 關하여 配意할것이다

天皇陛下行幸
光榮의中央法衙

【東京電話同盟】裁判所構成法實施로 我國의三權分立이 絶對確立된지 五十年記念日인十一月一日 天皇陛下께옵서는 中央法衙인大審院을爲始로 同檢事局、東京控訴院同檢事局、東京刑事地方裁判所同檢事局、東京民事地方裁判所等七法衙에親臨하옵시어 惶恐하옵시게도 優渥하온勅語를 下賜하옵섯다 秋氣淸淨한이날아침 赤坂離宮의正面의 菊花御紋章은 더욱빗나는것가치보여 榮光에 넘치는듯하다 天皇陛下께옵서는 御軍裝에大勳位副章을 御佩用하옵시고 侍從長御陪乘、松平宮相、蓮沼武官長、石黑行幸主務官以下側近者供奉、略式自動車鹵簿로 午前九時三十分宮城御出門 沿道에堵列한司法部職員關係團體代表等에自禮를 賜하옵시면서 同三十五分宮城法相、泉二大審院長以下各長官等奉迎에 大玄關에着御 便殿에 臨御 大審院長室에서 宮城法相、泉二大審院長、木村檢事總長、光行退職檢事、霜山東京控訴院長、松阪同檢事長、佐佐木東京民事地方裁判所長、中野同檢事正、馬場東京刑事地方裁判所長、鳥同檢事正、馬場退職檢事等에單獨拜謁을 賜하옵시고 宮城法相、泉二大審院長、木村檢事總長부터 裁判檢察에 關하여 各所管事務奏上을 御聽取하옵섯다 다음에 大審院長 御先導로 天覽品陳列室에 臨御 構成法制定의 資料인 루돌프의 獨文草案을爲始하여 大津事件、加波山事件、板垣遭難事件等資料의 여러가지 事件記錄、民事、刑事、行刑의 各種統計圖表를 御巡覽、刑務所製作軍需品代用品輸出等에도 特히 大御心을 쓰시사 御下問이게섯다고 承聞되는바 終始御熱心히天覽하옵섯다 그리고 第一號法廷에서 金山大阪控訴院長以下各勅任官淸瀨一郞氏以下全國辯護士會長等二百五十名에게 賜謁하옵신後 玉步를 四層廊下로 옮기시사 一千名의 奏任司法官에게列立拜謁을賜하옵섯다 그리고 一旦檢事總長室에서 御少憩하옵신바此間宮城法相、泉二大審院長 檢事長等의內給 各地方裁判所長 檢事長等의內奏任官以上百二十名은 第二號法廷에서 肅然히 參列한中을 惶恐하옵시게도 陛下께옵서는 百武侍從長御先導로 親臨 壯嚴하옵시게 優渥하옵신 勅語를 下賜하옵시여 法相에게 傳達되엇다 勅語를拜한것은 昭和四年十月一日 陪審法施行에際하여 下賜하옵신以來 今回가 두번째로 全員은 司法權運用에對한 深甚하옵신 聖慮에對하여 오직恐懼感激하엿다 陛下께옵서는 玄關大廳에對立한 第八代大審院長 故兒島惟謙氏의胸像을天覽 大津事件을爲始 數多의功績을세워 司法權獨立에 獻身的活躍을한 先覺者 故兒島氏의偉業을 생각하옵시며 諸員奉迎裡에 午前十時五十分 大審院御發 天機御麗하옵시게 還幸하옵섯다

優渥하온勅語下賜

【東京電話同盟】十一月一日 裁判所構成法施行五十年記念日에際하여 左와如한 優渥하온 勅語를 下賜하옵시다

勅語

皇祖考立憲의洪謨에 依하여 司法權行使制度를 定하여 裁判所構成法을 施行하옵신지 玆에五十年 그成績이 볼만한것이 잇슴

惟컨대 司法은國家의安寧과國民의福祉를 保持하는所以로 그運用如何는 實로政敎에影響하는바 크다 至今에 國運隆興、政務更張한秋에當하여 司直에從事하는者 推正 推直 去私 奉公 恪勤을 勵함으로써 法의威信을 昂揚케하기를期하라

中山中將等豫備役

【東京電話同盟】一日附官報로써 如左히發表하엿다
陸軍中將 中山蕃
同 田嶋榮次郞
陸軍少將 和田盈
同 栗田秀
豫備役被仰付(各通)

新政權成立을援助
獨立自治制尊重
興亞院會議서意見一致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九月十三日政綱政策聲明에잇서 新政權의成立을援助하고 이와協力하여 日支新國交調整에當하고저 事變處理方策의大方針을 中外에宣明한以來繼續히現地에서의 新政權樹立의動向을 監視하고잇던바 重慶政府의不斷한 妨害策動工作에도不拘하고 新政權樹立은 至今에時日問題로된때문에 我方에서도 이와協力態勢의完璧을期할必要에迫頭되어 一日午前十時十分부터 首相官邸에서 臨時興亞院會議를開催 阿部首相、野村外相、畑陸相、吉田海相、青木藏相、柳川興亞院總務長官 特히鈴木同政務部長出席 日支新國交調整의 第一步를내드딀 重要會議를 開催하엿다 卽劈頭 阿部首相은 現地實情을보면 新政權은 至今에成立의機가 熟하여 靑島에서의 汪、王、梁三巨頭會談도 도디어 그段階에 到達하엿스므로 政府는 旣定方針에 依하여 그成立을 期待하며 事變處理에 徹底的動因을 주려고한다 今日의 會議에서는 新政權援助及協力方策의 具體案을 協議하고 아울러 現地報告를 基礎로 新政權의 機構及臨時、維新、蒙疆等 旣存政權과 新政權과의 關係其他에對하여는 充分히 意見交換을 하고저한다 라고 新政權이 可及的速히 成立하기를 期待한다는 旨를 述하고 이에對하여 主로 柳川總務長官으로부터 興亞院事務當局에서 調整한 具體案의 細目을說明하엿다 首相以下 各閣僚로부터 各各熱烈한意見開陳이잇슨後 結論으로서 政府는 汪、王、梁氏로하여금 新政權을 成立시키려는 支那民衆의 輿望을 信賴하고 新政權의 獨立自治制를 어데까지든지 尊重하며 事變의 過渡期的 事態에 鑑하여 新政權의 要求가 잇스면 積極的으로 그成立을 支援하여 四圍의 妨害工作을 徹底的으로 排除하고 政戰兩略을 하여 新政權成立에 協力하지 안흐면 아니된다는데 意見一致를 보고 更히 諸機構、權限其他諸問題에 對하여도 愼重審議하고 正午一旦休憩後 午後零時 重要하여 午後도 이어서 會議를續行하엿다

對內事情이主因?
伊內閣大改造에臆測區區

【羅馬三十一日發同盟】三年만의 伊太利內閣大改造에關하여 가장 注目을끄는點은 일직親獨으로有名한 宣傳相인알피에리氏가 無任所大臣이된것과 從來 亦是親獨派로 이름잇는 스타라체黨書記長이 自發的이란名目下에 파시스트黨의 權的地位에서 轉落한것이다 但外交方面의批評은 오히려 파시스트黨內部事情이主要理由라고보는便도잇다 폰·마켄젠駐伊獨大使가 特殊理由에서 急遽伯林으로歸還한것과 어떠한連絡이 잇지나안는가하는 觀測도잇다

獨伊關係不變
獨逸政府側觀測

【伯林三十一日發同盟】伯林夕刊各紙는 모두 로마記事로 伊太利內閣改造를 大大的으로報道하고잇다 그리고各紙는 모두이에 對하여 論評을避하고 다못簡單히 이改造는 閣僚의交替에不過하며 政策에는 何等變更이업다고强調하고잇다 獨逸政府도 그것은 政治的으로는意味가업는바로 獨伊樞軸關係는 何等變化가업고 오히려 伊太利內閣員은 젊어져서 獨伊關係는 刷新되리라고豫想하고잇다

獨軍戰況發表

【伯林三十一日發同盟】獨軍司令部는三十一日西部戰線의 同日中의戰況에關하여 左와如히發表하엿다 西部戰線모젤河와 파르츠나데森林中間地區에서 微弱한砲擊戰과 偵察戰이잇섯다 其他方面에서는 格別한變化는업는데 我軍은 敵機四機를 擊墜하엿다

八日、聯合委員會
新政權基礎問題決定乎

【北京三十一日發同盟】汪兆銘氏의 西尾總司令官訪問 畑陸相의 閣議及參議會에 對한 支那中央政權問題發展에關한 說明等에依하여 汪政權을中心한 中央政權確立은 次次가까워지고잇는데 오는 八日부터 十日까지 靑島에서 開催되는 第七次聯合委員會內容은 陸續判明되고잇다 卽第七次聯合委員會는 이와前後하여 開催될豫定인汪、王、梁三巨頭會談과아울러 一月中에 設立할 中央政治會議의 最後的協議이다 그內容은

一、中央政治會議에 列席할 國民黨、臨時、維新、蒙古聯合自治政府各代表 其他各黨各派代表의 人數及代表者의 詮衡決定
二、中央政治會議에서 審議할內容及議決에關한決定
三、北支及蒙疆의 政治的 經濟的 文化的 特殊性을 中央政權下에서 如何히 發揮할것인가에 關한最終的決定

等等으로 보이는바 中華民國政府聯合委員會는 中央政治會議의 設立後 暫定的 存續如何에 不拘하고 實質的으로는 今回로써 政治會議로 發展할것으로 보여 今回會議招集이 必要한議案은 靑島會議에서 一擧에 解決될것으로 觀測되고잇다

第四海軍區新設

【東京電話同盟】海軍에서는 舞鶴鎭守府復活에따라 새로第四海軍區를 新設하기로決定하고 海軍區의 改正을勅令으로써 公布하여 十二月一日부터 施行될터인데 改正內容은如左하다
◆第一海軍區編入陸上區域 愛知縣、岐阜縣、三重縣(以上舊第二海軍區)
◆第二海軍區編入陸上區域 宮崎縣、大分縣及福岡縣(遠賀郡以東의海에面한郡及市)(以上舊第三海軍區)
◆第四海軍區 新潟縣 山形縣(以上舊第一海軍區) 富山縣 石川縣 福井縣 滋賀縣 京都府 兵庫縣(美方郡及城崎郡) 鳥取縣 島根縣(以上舊第二海軍區) 秋田縣(舊第一海軍區) 山形縣 新潟縣 富山縣 石川縣 福井縣 京都府 兵庫縣(日本海) 鳥取縣 島根縣의海上(以上舊第二海軍區)

蔣、緊急會議召集

【香港三十一日發同盟】重慶來電에依하면 지난 二十八日 突然延安으로부터 歸還한 邵力子로부터 延安會議의 折衝經過를 詳細히 聽取한 蔣介石은 國民黨中央執監委員會常務委員의 名義로써 緊急中央執監會議의 招集을 命하엿다고한다 이緊急會議에서 蔣介石은 國共兩黨關係의 當面한 危機를 如何히하여 打開할것인가에 關하여 根本方針을 決定할意向이라고하다 現在 重慶에는 國民黨首腦部로 ... 于右任、居正、張繼、 ... 陳果夫、李宗仁이잇고 甘肅方面의 西北戰線將領도 招電에 依하여 兩三日中에 重慶에 到着할것으로보인다

外務辭令(三十一日附)

【東京電話同盟】
企劃院書記官 曾禰益
任外務書記官(四等)
命通商局第二課長
判事 根道廣吉
任外務書記官(四等)
命東亞局第二課長
外務書記官 水野伊太郎
命通商局第三課長事務取扱
判事 松圓秀夫
任領事(四等)
命濟南在勤
判事 金子文六
任領事(四等)
命張家口在勤
外務書記官 瀧川欽哉
任大使館二等書記官(五等)
命中華民國在勤
領事 新井雅生
依願免本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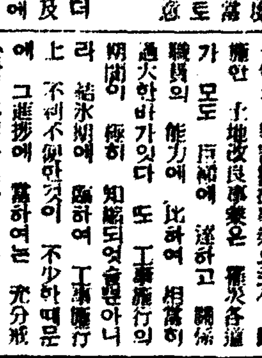
人事·集會

◆小林富一氏(라이온齒磨本舖社長)入京人事次 一日來社
◆三好三郞氏(同朝鮮駐在所)同上
◆吉田武夫氏(同大阪支店長)同上
◆中條弘氏(東京齒科醫學士)同上
◆稻垣亨氏(殖産局事務官)一日午後十一時十分京城驛發東京에出張
◆林正植氏(東亞日報社常務取締役)新任人事次 一日來社
◆高在旭氏(東亞日報社編輯局長)同上
◆蘇泰一氏(東亞日報社營業局長)同上

八面鋒

◇伊政府 親獨政策淸算前提로 內閣改造。
◇合離無變의 近代外交이지만 伊의 外交政策大轉換은 要注目。
◇米國가튼 富者집 몸조심과 도달은만큼 伊의苦衷이 不無。
◇北歐에서 分割을못낸 獨蘇의 다음目標는 발칸。
◇獨蘇軍事同盟으로 흔들려질 歐洲天地는 明日의興味焦點。
◇臨時道知事會議開催、歷史的大會議。
◇未曾有大旱災의 根本方策을 세우시오、九·一八諸統制를 遺憾업시합시다。
◇輸出貿易 卅億突破、第三國貿易改善에 倍前努力이 必要。

開運의好機는只今!
名觀相家


[생선봉성]

京城相學院

京城府…
(切手同封)

회충구제량약
岩崎大海堂 セメン菓子 (珊瑚花 涅菓子)
무서운蛔虫卵을 驅除합시다! 蛔虫卵은 每日食用하는 野菜김치等에附着하야 人體內에드러가서 體內에生長하면서 發熱腹痛嘔吐貧血夜泣等其他各種病의 原因이됨니다 特히 小兒는 蛔虫에 걸리기쉬운故로 每週日曜日에는 예전부터 信用잇고 잘듯는 岩崎大海堂 세멘菓子를 服用시켜서 이무서운 蛔虫을 驅除하고 애기네를 健康하게 길러주십시요
本舖 大阪天王寺 合名會社 岩崎大海堂
類似品잇스니 商標에注意

어린이의善藥
소아간기산 小兒肝氣散
京城府阿峴町 製造元 普生藥房本舖

돈버는만두機械
割引 特價 四十圓
城野製作所

求職案內
朝報案內
藥劑師 採用
금자옷고름
店員入用 三國商店
大活動寫眞機
スピード金儲け法

剤布濕 感冒 炎肺
アンチフラミン
全國有名藥房販賣

會商永吉
京城府寬勳町一四四

普仁堂案內 藥草 醫生 補材 漢藥 痼疾
京城鐘路二丁目 普仁堂藥房

白癜 紫癜 麻木 蟻行 癩痛 症
火傷 갓치부르트는症 手足痲痺 其他瘡瘍
新發明 新肌丸 速治劑
문둥병 癩病
京城府龍頭町 東都製藥合資會社

昌慶苑丹楓이 붉을대로 붉어젓다!

노는愛國日＝玩賞客遝至

창경원의 단풍은 봄의벚꽃에 유하여 서리의영향으로 단풍·다는듯한 나무의 피알은가을 햇볕의녹음 겨울의눈경치와 아울 거절에 대한기대를 가지기어러 벗을 바더찬란히 빗나고잇다 특터 예로부터 유명한것인데 금년 은것같다니 동비거도 요즘을 히 유착하시된다 배경을하준 당지(愛國日)서울의 단풍으로마치 관광신의 단풍을 방불케하여만 흔 사람을 끌고잇는데 마침일 일은 애국일로 부내의각관회점 구장 요리스집 차집이 쉬느니 만치 아침부터단풍을 완상하러 는 사람들이모여들어와 대성황을이루고잇다 (사진은 춘당지에서)

今後의土地改良工事는 當局直營으로移管

惡德請負業者를一掃하고施工의萬全을期하여 農政上의難關、不良畓을根絶할方針

총독부에서는 지금까지의 토지개량공사의 실적에비추어 종래의 청부공사(請負工事)를폐지하고 이를당국의 직영으로하도록 결정하엿다 이때까지의 토지개량공사는 청부제도이엇기 때문에 당사자의 영리본위에치우치서 일이 충실하지못할뿐더러 자칫하면 측량 설계등에도 치밀치 못해지는 실수가 잇고 또 토지개량 수리공사에 가장 긴급해야할 토질조사가 등한하게되는수잇서 가령、당초의 계획인 일천정보의 몽리(蒙利)면적이 공사를마친다음의 실적을 보면 팔백정보로 감소되는예도 잇섯스므로 당국에서는 토지개량공사의 직영으로말미암아 지질조사도 가장 신중히할뿐아니라 준설(浚渫)가튼것에도 일층 주의하게되엇다 그리하여 조선의 농정상(農政上) 가장난판이되어잇던 불량답(畓)의 근절을 도모하기로되엇다

七日부터精神作興週間

節米實行日等 銃後의緊張을強調

사변은점점장기로 들어서고잇서 동아신질서를건설할국민의 기필가일층 필요로하게된이때、금번은 도중난관도에 미증유의 한재까지 막게되어 총후국민의 일단의 긴장이잇서야할 시기이다 그래서 경성정신총동원경성련맹 경성교화단체련합회、경성군사후원련맹등 네단체에서는 이번에 오는칠일부터 일주간을 국민정신작흥주간을기회로 부민의긴장과반성을 일층 촉진시키기위하여서 종래에 엄덕절미실행일(節米實行日)등여러가지의 특이한 절차를 계획하고잇는데 그개요는다음과갓다

第一日＝十一月七日(火) 皇軍感謝日
第二日＝十一月八日(水) 節米實行日
第三日＝十一月九日(木) 資源愛護日
第四日＝十一月十日(金) 詔書渙發記念日
第五日＝十一月十一日(土) 家庭報國日
第六日＝十一月十二日(日) 保健增強日
第七日＝十一月十三日(月) 克己精勵日

功勞者表彰 赤十字城津支部서

【城津】일본적십자사 선진지부에서는 십일월삼일 명치절을복하여 적십자사업공로자로서 좌기십육명을 표창하기로 되엇다고한다

韓晋益·柳淵夏 金弘燮 金炯贊 呂暻漢 具乾會 節永雅男 總領治 阿井信次郎 杉山瀾 西平休治 泉谷秀藏 田邊藏市 中尾 龍八 段貴三 本間廣吉

御眞影 五校에傳達式

사변후정정상기트 들어서고잇서 동아신질서를건설할국민의문 기필가일층 필요로하게된이때 금번은 도중난관도에 미증유의

지난번 경성녀자사범학교、수원공립농업학교(水原農業)마산공립고등녀학교(馬山高女)、동래공립중학교(東萊中學)、진주공립중학교(晋州中學)、김해공립심상고등소학교(金海公立尋常高等小學校)에 대하여 하사하옵신 어진영은 일일오전아홉시 경성부 정무총감관저에서 고교경녀자사범학교장(高橋校長)외 각 게도지사에서 전달하엿다 (사진은 전달식)

皇國臣民誓詞塔竣功

來廿四日에除幕式

全鮮學園의赤誠具現空前의盛儀豫想

조선안의 아동、생도、학생들의 적성으로 조선신궁안에 세우고 잇던 황국신민서사탑은 드디어 얼마전에 준공되어 총독과 학무국에서는 오는이십사일 신궁 광장에서 제막식을 거행하기로 되엇다 조선교육회에 출석 두사람외에 한은 전조선 각지교직자 대표를 비롯해서 서울안의 각학교 는 교사한사람 생도두사람씩각 도대표로서는 각각소학교이상대 학까지 교사한사람 생도다녀각 서 제막식축하회가 열릴터이다 게에서 지금까지보지못한 성황이 예상되어잇다 그리고 동일 오후다섯시부터는 경성부민관에 서 제막식축하회가 열릴터이다

經濟事犯徹底摘發을

總督、知事會議에強調

경제사범(經濟事犯)의 오경석처 지에관한 여섯가지지령을 운용 하는경우에는 종태 취하여오던 방침을 계속하여 단연엄벌주의로 나가라고 후시를한바가잇섯거니와 재판소는 일단경찰당국의 취급을거쳐서 최종의 재단을받는기관이므로 이보다는 제일선경찰기관을 감독하는각도지사에게 이 것을 다시강조할 필요가잇다하여 일반이시각도지사회의를 총독부에열고 이에대한 다음과 가튼입장의 통지를하여 물가정지령실시의 철저를강조한 바가잇섯다 즉 사변발생이래 당국으로서는 공정가격제도 통제경제를 강행하여 물가앙등을 도모하는등 허다한 노력을 하여왓스나 전시하에 잇서 물가의 등귀를 압수다소를써왓음에도불구하고 물자는여전히 앙등하고잇는주세에잇다 이것은 저시국민 경제의 수급(需給) 불균형의판 단에서

最高의拳豪들

拳鬪界總登場

明夜、本社大講堂에서

米國산노체스는 포王李鳳東의 來征 을앞두고 全朝鮮拳鬪聯盟主催(本社後援)아래 第六回全朝鮮아마추어拳鬪選手權大會兼日米對抗拳鬪選手權戰을 十一月二、三、四日의四日동안每日 午後七時부터 本社大講堂『령』에 서擧行케 되엇다 各級選手들의 寸拔試合을 한後各級의覇權을 다투고 本社大會에參加한 選手 다 이번 同大會에參加한 選手

來日은初等學院名節

府內의三十餘學院·六百餘院兒動員하여 第2回學藝會開催

本社後援 於府民館

금년으로 두돌을마지하는 경성초등의원연합의학예회는 명이일오전아홉시부터 태평통부민관대강당에서 열리게되엇다 이학예회에는 서울안에잇는삼십여학원이 참가하는데여기에출연하는어린아동들은 유백명이나 된다고하다 학예회의순서는오전오후의 두부로나누어 마흔나섯가지의 순서가잇는데 각의교에서는 자기학교의 가장재미잇고도 자랑스러운 노래와유희연극등을골라그이 준비되어 시내어린이들의 제일큰명절이되어잇다 게도잇스나 하편으로 루기、매석(賣惜) 매점(買占)등의 악덕행위도 또한적지안타 어떠하형편인즉 판게여자에게 법령의 정신을철이해시켜서 국민적양심을 환기함에 전력을다하며 국가총동원체제의 기본조건인 저물가(低物價)정책의 철저를 기할것이다 이와가치 당국의 선처노력이 잇슴에도불구하고 이 때 만일의법행위를감행하는 사람에게대하여는 종후사회를 숙정(肅正)하는 의미에서 단호한 처치를취하지안흐면안될것이라 하엿다나

赤十字條約成立

七十五周年記念式典

【東京電話同盟】금년은 적십자조약이성립된이래 칠십오주년을 마지하는 해인데 전세계는 모두가 전란에 휩쓸려 들어가려는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아래에 잇스면서도 각국은각각 성대한 식전을거행하고잇는데 조약에 가맹한닐일 오는십오일오후두시부터 일본적십자사강당에서 기념식전을 거행하기로되엇다 아당일의 조약사본(寫本)과 안리 -두나한의 초상을 보내어 왓스나 체신성에서도 사종의기념 절수를발행하게되엇다 기념절수 는 이전(錢)사전(四錢)십전(十錢)공새(?)의 네가지가잇다 체신국에서는 오는 십오일부터

記念스탬프

仁川署의金密輸事件

參謀格三名逮捕

取調中의四十餘名大部分釋放?

【仁川支局電話】청도(靑島)상해(上海)를비롯하여 내지와 조선 각지에 걸처 대규모의금밀수를하던 밀수단이 인천서에발각되엇다함은 누보한바이나 동서에서는 그동안 밤낫을 가리지안코 수모자 체포에 전력을다하고 잇던중 지난 삼십일일에 동서 강전(岡田)사법주임이 순사두명을 대동하고 경성에출장하여 각서의 응원을바다 드디어 명동일수단의 수모격인 주모자세명을 체포하여다가 엄중취조중인데 이의 취조가엇되는데로 사실여명의 혐의자는 이제그들의 주소성명은 보면아래와갓다

京城府竹添町 ○○○(三七)
京城府小門町九五 梁○○
住所不明 ○○○(三○)

朝鮮教育會

廿四日부터總會開催

조선교육회에서는 오는이십사일오전 대문소학교(大門小學校)강당에서 금년도조선교육회(朝鮮教育會)총회를 열고 각도교육회간부 약삼백명은 이날오전 시산하 황국신민서사지주(皇國臣民之柱)제막식에 참렬하고 오전열시부터 총회를 개최하여 조선내외교육 관계자의 칠백명의 부민관에서 기념 강연회를 열기로 되엇다 또 오후에는 황국신민서사지주 제막식후 전문학교도 참가하여 교육회 기념식을 개최하기로되엇다 그리고 그이튿날인이십오일은

耐寒報國

燃料節約하기로 鐵道愛國班決定

목사철노판사 애국반원 명은 일찍이잡어 애국일을 뒤이어 이번겨울은 연료절약 하기를 만상일치로 결정하고 이 달하달부안은 ·難을 피지안키 로 의논하엿다

本社取扱分

부내중림정 심상소학교 되어보이는 내지인 부인이현금 목에잇는 대경지회원(大京城?)의원들은 경기이님째서 신성황군의 오지(銀紙)삼백오십그 의재민들이 적어고유주리는 정 람을 본사에가지고와서 국방헌 상을생각하고 구제금으로이십원 금으로 전해달라고한후 자기의 을모아 약소하나마 재지로전달 성명도 알리지안코 돌아가다 본 해달라고 일몰아즐 본사에기탁 사에서는 곳 경성군사후원련맹에 해왓다 전달수속을 취하엿다

▲一金 七十二圓也 (哈爾濱文府接受分)

銀紙를寄託

작 삼십일일 사십오륙세가량 후한인부터 부내남대문소학교(南

警察官의住宅難

京畿道警察部에哀願的陳情

一部는아파-트建築

가도시의주택난은 날로심각해 가고잇는이때에 이천여명에달하는 경성부안의 경찰관들은 날이면 다녀도 적당한집을잘구할수가업스 니 어떠케해서든지 경관의숙사 를지어수기를바란다』고 비명을 국자에게『우리하급경관들은 주 올리며 진정하엿다 이에대하여 (高)경기도경찰부장은 아래와가 치말한다

경찰관으로하여금 될수잇는대로 사생활에안심시켜서 일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왓스나 최근에 이르러서 몰까가 앙등 하엿을뿐아니라 예년에 보지 못한 흉작으로말미암아 농촌 에잇던 사람들이 도회지로만 모여드는경향이 잇스므로 일 층경찰관이 주택난에 쪼들리 게된것에는 참으로 동정하여 마지안는바이다 경찰부와 본 경서 종로서의 세곳에서는 별써숙소를 세우기로 결정하고 설계까지도 다끄치낫다 즉 민간으로부터 기부라든가 조선 경찰협회의 자금을 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으로서의 준비는 끄치낫스나 자재난때 문에 결국명년봄까지에는 착 수하게 될것이다 그 양식은 물론아파-트식이다 그외의경 찰서에서도 상당히 내부적으 로는 말이 나잇스므로 머지안 허서 구체화될것이다

校舍가무너저

九名重輕傷

永興學術講習所橫厄

【咸興文化通信】삼십일일오후세시에 영흥군인흥면남산리(永興郡仁興面南山里)오십이번지 동일 인 김세범(金世範)의가 경영하는 남산사설학술강습소(南山私設學術講習所)가 신축중에잇 는데 모진바람으로인해서 너머 젓다 그때에 그변을보고잇던 동교오학년생노오신남(魯五信男)(?)의 일동외에 경재 의생(?)들이잇고 그외에 여덟사람 은 두주일내지일주일동안 치료의 중상을바다다 이부상을바 든 아동들은 영흥읍내길성의원 (金星醫院)에 입원치료중이다.

兇器든少年賊

格鬪끄테逮捕

일일 새벽다섯시경 부내견지정 (堅志町)오십오번지『아세아』공 작소 사무원 윤석숙(尹石叔)는 밧게나와다가 우연히 등경속십 사번지 소화(昭和)의원기계점창 고에 십칠、팔세되어보이는 소 년 두명이 들어가는것을 발견 하고『도적이야』하고 잡으려들 매 그중 한명이 흉변 면도칼 을 휘두르며 항거하는것을 마치지 나가던 송경(松岡)파출소원이발 견하고 이를 추격하자 이번에 는 장도리를 던지니로 호각을 불어 동행의 응원을 청하여 추 격하여 낙원정(樂園町)길에서 겨 우 체포하엿는데 경찰관의 취 조에 대하여 입을다물고 일 체 말을안하고잇다 그리고 공범한명은 도망하엿 스며 체포하는통에 판동정(館洞)일백팔십육번지 이동원(李東 遠)(?)은 범인의 칼에찔려 이 마에 상처를입엇다

最短期內中毒完全根治 阿片모루히네 絶對鹽類製不使用無苦痛 元山驛前中央醫院電二六九

今日의 라디오

第一放送 ▲午後六時 月例訓話 ▲六時三○分라디오時局讀本 ▲七時三十分講演 ▲八時(平)小說 ▲八時五○分謠曲 第二放送 ▲午後六時(東)對話 ▲六時二五分(東)講演 ▲七時四○分興亞夕(新京)(北京) ▲八時一○分(各局)第七二ユース ▲九時二○分(東)歌謠曲

神宮大會 스팔타軍勝利

【東京에서 本社特派員高鳳翔發電】스팔타軍對京都代表(第三回戰)은 十一月一日에 擧行되엇는데 스팔타軍이 四十七對二十七로勝利하엿다 飲武庭球大學、高專第三部對抗戰에 鮮滿臺對朝鮮醫專試合은 七對六으로 朝鮮軍이 惜敗하엿다 朝鮮對關東代表士蹴球는 맹비-快勝에 六八對零으로 優勝하엿다

羅南鄕軍分會서 軍事連鎖劇

【咸北文化社】재향군인회 나남분회와국방부인회 나남분회에서는 공동주최로 십일월일일부터삼일동안 군사연쇄극(軍事連鎖劇)을열기로 하엿다는데 군도나남의인기는 몹시노파가고잇다

살을절약하자 고한다고 하루에 일도잘못하고 병까지 난다면 어쩌라 ▲이것은 전혀일이 아니라 절약을한다면 떡해먹던것을 그만두든가 솔만들던것을 적게한다든가해서 유용하고 긴급한것이외의 소비를절약하는데 동이잇서 그대로 실시하는 것이 오늘의절미운동의 대지이다 ▲그러고보니 일을만히할수록 밥은 에밥세끼먹던것을 두끼로 당한다면 어떨까 ▲물론 장을이사는것으로 로 해석한다면 방울먹던것이 국단의절약을한다면 몰라도 끼니를줄여도 조케시、물론 그런 경우가잇다하더라도 그러면오는 가저동이 조홀것이다 ▲그러나 살절정약을한다고 먹을것을안먹고 먹을것을 안먹기때문에 몸이허약해지고 몸이 허약해지기때문 에 일도잘못하고 병까지 난다 ▲그러고보니 밥만히먹어야 일을 더만히할수잇다 ▲그러나 바나무람것이 아니라 몸이더 튼튼해저서 일을더만히하기를 축 원하여 한층기쁠더권한대도 큰 절미운동의 힘을기르게될것이다 ▲이러케해서 잘못은 아닐것이다

朝鮮作家名作全集 全十卷

朝鮮初有의權威와 盛裝과良心의朝鮮 名作全集全十卷現 朝鮮文壇의精粹만 을모은天衣無縫의 珠玉가튼小說! 燦然한光明을보라 이全集의年本을따 라그本來의面目發 揮하고잇다

書家 諸先生蓋伯裝幀
美裝箱子入四六版
高級紙五百餘頁
冊代每本 定價 壹圓八十錢 送料 二十五錢

名作總網羅의全集

李光洙作 꿈
李箕永作 어머니
嚴興燮作 幸福
蔡萬植作 金의情熱
方仁根作 結婚前夜
朴泰遠作 愚氓
韓雪野作 黃昏
安懷南作 愛人
金東仁作 水平線넘어로
李無影作 먼동이틀때

韓雪野作 黃昏 (中賣發)
金東仁作 水平線넘어로 (中賣發)
李無影作 먼동이틀때 (中賣發)

春園·李光洙傑作選集 全五卷

朝鮮－小說界의 最高峰인 春園李光洙先生傑作選集은 朝鮮初有의 이것이다 全部가 名作이다 發行한지 十餘日 이못되여 一、二配本은 品切되여 다시 再版이 나왓다

社會에끼친足跡巨大 宋鎭禹

春園이 朝鮮社會에끼친 足跡은 크고 巨大합니다 그는지 금부터 三十年前 黎明期의 문壇과 評論界에 先驅者中 한사람으로 나타나서 만흔애 를썻습니다 그의 努力은 多 數人士가 이저지못할것입니 다 그의特徵은 文章이남 다르게 流麗하고 燦爛한點에 잇습니다 더구나 小說에잇서는 그의才藝은 만흔 靑春士女를 陶醉케합니다

文化의進步와出版 呂運亨

한나라나 한民族의文化가興旺 하랴면 그社會에 큰人材가만 어야하고 따라서 出版文化가 크게進步되어 조흔冊을 널니 펼치게함에잇는데 이제 選集 을發行한다 하니 이러한點으 로대단히깁버합니다 春園은우 리文壇의 才人이외다 그의이 끼친 文翰가만흐나 그들收 集刊行함은 크게 時宜를어든 일인줄압니다

半島江山 發賣中
隨筆과詩歌 發賣中
文學評論 十一月一日 發賣
短篇小說 十二月一日 發賣
갈등의서름 新年一月 發賣

★體裁 四六版 五百頁挿繪入 洋裝美冊箱子入 冊代每本 定價壹圓八十錢 送料 二十五錢

長篇小說 그女子의一生

李光洙著 定價 上下參圓 送料 二十五錢

눈물의、最大悲劇의小說
朝鮮日報에 連載되야 天下 百萬讀者의 눈물을내든 애달픈 佳人湖月의 金鳳의 이야이에 눈물은 좋다! 漢江水되고 한숨은 모아 東風風 된다!

內容見本 申込次第送呈

京城鍾路二丁目 振替京城六二三一 電話光③一五三二

永昌書館

朝鮮總督府編纂 教科書指定販賣所

今般和信百貨店前으로新築하여營業을擴張하여移轉開業하엿사오니 愛讀者同業者諸位께서 倍前愛護하여주시기를바람니다 京城鍾路二丁目八四番地에서 京城鍾路二丁目九八番地

概說 新文學史 (四一)

林和

第二章

第二節 精神的準備

雜誌

朝鮮에 잇서 雜誌의 發刊은 新聞에比하야 若干 뒤느진 것으로 一八九六年 十二月에創刊된 獨立協會의 機關誌『獨立協會月報』로 嚆矢를 삼는다 獨立協會月報는新聞을 이야기할때 말한바와 가치甲申政變後 米國에 亡命햇든徐載弼氏가 歸國하여서 發行한 것으로 곳『獨立新聞』으로發展한것이다。

이 雜誌의 特色은 勿論獨立新聞과 한가지로 協會의主張을 宣傳하는데 잇던것으로 그以後 韓末雜誌의 共通한 特色의 端初엿다 볼수 잇다。李鍾泰氏가 論文「朝鮮雜誌發達史」에서『이時期에 나온 雜誌는 朝鮮에서 朝鮮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과 가튼意味에서 政治的言論을 해보자이엇다。그런 까닭으로 이때를 政治雜誌時代라고 하여도 過히 틀님이 업을줄안다』고한 만큼 政治上의 全然한 未覺과 低級한 批評이 雜誌의 根本特徵이엇다。

이點은 조곰도 新聞과 다를이 업는것이나、新聞이란 新文化의 主體가 內地에서 輸入된 대신 雜誌가 米國에서 輸入된것은 興味가 잇다。

前述한 徐載弼氏가『獨立協會月報』를 發刊한것이 米國으로부터 雜誌를 輸入한 偶然한 因緣이 되것이나、그보다도 먼저 雜誌는 米國人이 朝鮮事情을 硏究하기爲하여 英文으로 創刊하여서 시작한것을 보면 다른 理由가 업을 것도갓다。

韓末에 잇서서 雜誌가 一般으로 新聞에 比하여 勢力이 떨치지 못한것을보다 新聞이 內地에서 輸入되고 雜誌가 米國에서 輸入된 事實이 或은 當時 政治的勢力의 關係를 反映하고 잇지나 안혼가 하고 想像할수가 잇다。

이時代 言論界의 鳥瞰圖는 事實上 新聞에 잇섯고 雜誌는 存在하엿것은 新聞의 前身이나 派生的이며 西洋人의 朝鮮硏究 紹介의 域에 머물러잇섯다。

政治的意見과 興味의推進에 잇서서 事實 雜誌는新聞에 匹敵하지못하고 新聞誌面은 雜誌보다 比重이 컷지만은 物質的 政治的實力이 必要햇던만큼、政治的言論이 저ー널리즘의 主張이엇슬때엔 雜誌는新聞에 미치지못하엿고 또한 朝鮮에對하여 보다 만은 關心과 朝鮮안에서보다 만은勢力을 占有하고잇든 國家들이 或是雜誌를 發行하엿다。이러한原因이 朝鮮雜誌를 米國에서 輸入하는條件이 되지안는가한다。

또한 雜誌의發生과 發展을 新聞보다 느지게한것이 아닌가 한다。

乙巳條約에依하여 朝鮮의政治的運命이거의 決定되다 싶이하고 따라서 朝鮮人의 政治的言論이란것의 意義가그前보다 稀薄되어저서 一般의關心이 政治에서 次次 文化方面으로 方向이 轉換되면서 雜誌가本格的으로 發展하엿것이다。

예컨대 一般이 政治보다 政治를 主要關心事로 알고 잇슬때에 新聞이 雜誌보다 尊敬되엇서 牛耳를 잡고 그優勢이 轉換되면서 新聞의 運命이 交代하여서 雜誌의 時代가 展開되것이다。

文化와 啓蒙을 企圖하는 人의 精神狀態를 表現하는 形式에는 新聞보다도 雜誌가 더 適切햇는 때문이다。

그러므로 新聞을 政治時代의 朝鮮言論을 表現하는 形式이라고 하면 雜誌는 啓蒙時代에 適應한『저ー낼리즘』形式이라고 말할수가 잇다。

(寫眞은 大韓每日申報創刊號 左로부터 두번재가 梁起鐸氏)

學藝

文藝時感

作家들의反省材料 (上)

安含光

우리는 아직까지 內地文學을輸入만햇슴뿐으로우리의立場에서 自主的으로 생각(公的으로)하여본적은、全無하지안혼가한다。하나 批判업시 輸入만하다가는自己文學의特殊性을키워낼條暇도업시그저 남의것을·빌려입는結果에 머저질念慮가 잇다는意味에서도 그러하거니와 그輸入을 契機로하여 反省의材料를 얻는다는意味에서도 한번은 自主的인立場에서 생각해볼必要가 잇다고 밋는다。

村山知義氏의『丹靑』에對한所感을적어보든 所以가 여기에잇다。더욱이『丹靑』에는 朝鮮人의問題가 正面으로 取扱되여저 잇다는點이 吾人의 興味를도든다。

『丹靑』을읽고 먼저 생각케되는것은 作者는 무엇보다도 먼저 朝鮮을 理解하려고하엿다는點이다 理解하려는 努力、그는 心情的親和性우에서만 [illegible] 수잇는것이다 作者는 그러한心情的親和性을갓고、朝鮮의正直한 感想을 正直한 눈으로보려하엿다。

그러기에만 各層의文化人을登場시키어 저마다의苦悶을 말하게한다。

그러나 結局 追求를斷念한作品이라는생각이든다 아니 作者가 追求를 斷念하지안흘수업는 位置에서 自己 스스로를 認識하는作品이엇다고생각한다。

이것이 主人公으로하여금 極히 消淡한 客觀的位置를 버서나지못하게한 所以다。

이러케 追求를 斷念하지안흘수업는位置에서 自己 스스로를 認識하고잇섯다는 痕跡은 到處에서 發見할수잇는일이다。

假令 性格上의 缺陷에 對해서 主人公은 寬容히 一般의 情을 느낀다든가 하는것이 아니고、朝鮮人이 또는 歷史的特殊性이라든가 또는 社會的 環境의 理解를 가지면서도 愛情을갓고 主體的으로 溶解하지못한 所以는것은 아니엇슬가? 다시말하면 主人公이『좀더愛情이 잇다면、當然히 맛부드처나가서 相爭하면서도、結局은 조흔結果를 어들것이다』라고생각은 하면서도、그러나 實行하지못하는 理由는 幸이든不幸이든 亦是『아무리 생각해도 뛰처날수업는 苦痛이 내려덥지고잇다는것이 슬프고 두려웁게생각되어진』때문이아닐가。

그러기때문에 主人公이 그저 朝鮮을 떠나버리려는 心境의變化도 決코 朝鮮의現實에對한 嫌惡이아니라 오히려 愛情을갓고 잇기때문에만 느낄수잇는 自己懷疑乃至는 自己不信의 結果엿다고 생각한다。

따라서『그러한問題는 朝鮮사람에게·맛기는수밧겐 別道理가 업다』고 부르지즌 主人公自身도 그러한問題는 朝鮮사람으로도 어떠케할수업는것이란것쯤은 잘알고잇섯슬것이다。

『丹靑』은 여러가지를 생각케하는作品이엇스면서도 그讀後感이 決코 자미롭엇다고 말할수는업는作品이엇다。

그는 作者에게對한不滿이냐? 千萬에! 구지말한다면 朝鮮의 雜然을 드르면서 즐거움보다는 主人公이 오히려 愁然함을느끼는 主人公의感情과 一脈相通하는 心情이리라! 가장 아픈急所를 다시한번 決定的으로 認識케하는 作品이엇다。

主人公은 그아픔가운데 좀더 主體的으로 溶解해주엇드면 생각한다。

그舞臺가 아모리생각해도 뛰처나갈수업는苦痛에 침울하려잇는것인지、어떤것인지는 내斷定해 말할것이 못되거니와 假使 그러타손치드라도 透徹한愛情을갓고 얼사안어 본다면 그가운데는 亦是解決할수잇는 만흔問題가 包藏되어잇는것은 아닐가

其實 作者는 그의 民族的特殊性에서는 徹底解剖하고잇슴에 反하여 그것의 世紀的共通性이라든가 하는것에 對하여는 全然背面한感이 업지안타。

作者가 追求를 中斷케되는所以도 그心情을 民族的特殊性이란面에서만 차저내려고 한때문은아닐가고 내게는 생각된다。

左右間 이차례의 ?에는 作者의作品이 이러틋 산問題를 捕捉하고잇슴에 反하여 朝鮮에 발을부치고잇는 作家들에게 依하여는 오히려 적은世界만이、主로 取扱되어저잇다는것은 무엇을 말함인가!

그는『丹靑』의 作者보다도 더 追求의 어려움을 意識케되는 所以이기도 하겟지마는 어쨋든 自省할材料를 提供해주는바잇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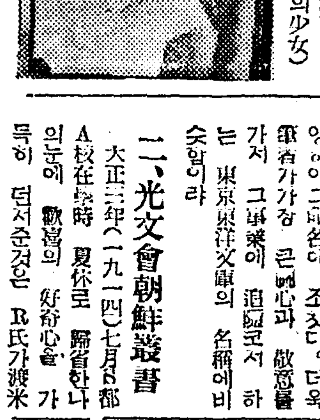
△季節은 戰爭을 無視하고……(波蘭南方 우크라이나地方에는 풍성한 가을이왓답니다)

學藝안테나

新選洋畫展

東京畫壇의一流網羅 三·四日三中井서

府內本町 百貨店 三中井에서는 오는四五日 이틀동안그六階『갤러리』에서 新選洋畫展覽會를 開催한다는데 出品畫家는 東京畫壇各派의 一流를 網羅하여 帝國藝術院會員 有井柏亭 山下新太郎 有島生馬 諸氏와 二科의 藤田嗣治 東鄕靑兒 野間仁根 鈴木信太郎 文展審査員 石川寅治 川島理一郎 獨立展의兒島善三郎 中山巍 新制作派의 猪熊弦一郎 諸氏와및 故人이된 岸田劉生 前田寬治의 逸品을合해서 四十餘點이 陳列된다고한다 今秋畫壇의 조흔參考가 되리라하여 一般의期待가크다



(寫眞은 東鄕靑兒의少女)

隨筆 第七의孤獨

深夜의感傷 (上)

吳章煥

쓸데업는 생각에 잠겨서 잠이루지 못하고 가ー끔 책장을 뒤적이다가 밤늦게는흔히 汽笛소리를 듯는다。

이런때 마다 불현듯 멀ー리 旅行을 떠나고 시픈생각이 나는것은 엇지 오늘 저녁 뿐이랴 밤車가 주는 印象이 아직도 내게는 明瞭하다。

夜車속에 잇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 자는데 나 혼자 食堂車에 드러가 한구석에 안저 진한『커피』茶를마시는것도 조흐려니와 우리가 모두 잠자는 사이에 밤車는 어느듯 다른 아츰과 다른 都市로 通할것이 아니냐。

내가 몹시도 無聊한 孤獨속에 가치어잇슬 때마다 저 汽笛소리를 듯고 몹시도 밧가워하며 깃거워한것은 或여나 그車가 나의 衰殘한 夢想을 실고 내가일즉이보지못한 어느아침과 어느都市에 다으리라는 가벼운哀愁이 아니엇슬가。『車窓에의情熱』에는 이러한 句節이 잇다。

無限이 잇다는 精神世界의 旅路에서 그가 거처온 거리는 또한 無數하엿다。藍龍히 그는 孤獨을避하여 恒常다른나라로 떠나려 한다。허나 그는 언제든등에는 鬱憂을 질머젓섯고그의秘密은 몹시도 疲困햇수며 失望을하여가지고 다시 도라온 곳이란그의 故鄕인 孤獨이엇냐。

悲哀 疲勞 나우어 이야기 하자면哀傷이라는것은 가장 孤獨과 가차워질 수 잇는것이 아닐까。

그는 孤獨의 荒原한 曠野에 잇스면서도 能히貴族的인 矜持를 일지 안헛스나 급기야는 그 孤獨속에서 헤여나지 못한채 미처버린것이 아닌가。

나는勿論『니ー체』와가치 살을 어여내는듯한 孤獨에 癩痢한다든가 또는 孤高의 精神을 自虐할만한 男子氣를 가지지는 못하나 生來五월에 흐르는 哀傷으로 因하여 저우의 孤獨의香내를 마트려한다。

그것은 바람에『파라스』神像 우에 올라안저 날개쪽지를 푸득이며 쪼차도가지안는 大鴉를 보고『네버ー모어、네버ー모어』하는幻想을 늣기는『포ー』의氣分이라든가 慾望을 열어제치고『오더라ー데몬!』하며 너『ー체』와그의 朋友가 술잔에 붉은『와인』을 가득가득히부어 잡드른『바ー셀』市의街上에서 집어던진것과가튼 哀傷을 懷古하든가 或은悲哀를 準備하는 마음이 아니엇슬가。

밤늦게 汽笛소리를 듯고 오두머니 안저잇스면 머리속에 떠오르는것이란 무엇일가。

왼終日 孤獨한 繁雜속에서 헤매이다가 남들은모다 잠자는틈에 겨우安息을 어더가지고 내가 부르는것은 무엇인가。

끄러히시 나오는 이땅의 詩人과 끄러히시 사라지는 이땅의 詩人들의 노래속에서 언제나 내가들을수잇는것은 다ー만 憂鬱과 孤獨과 哀愁밧이라

果然 어느世代에 잇서서나 그 世代에가장 敏感하다는 또 敏感해야만되는 詩人들로서 책상이에가벼운 哀傷과 孤獨을 招待해노코 흔히 이제는 記憶조차 흐미ー한 追憶속에서 술잔과 孤獨 만을노래할 일일까。

이는 눈나리는 山莊에숨어안저 날로人불이나 쪼이며 寂寞그로 더펄 쏘다지는 눈이나 내여다보는 隱遁者의 孤獨과가치 나에게무엇을 나눠어주랴。

나는 내自身의 노래를 도리켜볼때、내또한눈물과 墓地와 碑石과 더나가서는 荒蕪地以外의 아무것도 차질수업는데 가엽지안흘수업다。

다ー만 나의 노래는 天賦의 내음새를 남과 함께 마르며 어찌한번도 남먼저 부르지지못하엿는가。그저卑屈하게도 남과 함께울엇스며 남과함께 呼訴해왓슴이엇는가。

어느듯 나는 나의 不眠症을 孤獨과 哀傷에 돌리려하는 내 自身에 어안이벙벙하다。

『그대는 주인어른을 뫼시고 여러 고장과 여러 나라를 따러다니 아모리ー조니 즐거웟을테니 그대는 嶺南의 孤獨이 하는것은 모르리라。

나는 지금도 이무서운전주이사리모양으로 매일 쪽가튼곳에 처박혀잇고 또 매가 꼭 가튼 서름에 우러 지안허 찌드른것이네。五十年 그러지 五十年間이나 두고 恒常 洸然과 不安때문에 짓눌려 내겐는 다ー만 괴로움과 憂鬱이 남엇슬뿐일세。』

蠹魚雜錄 ❶

獵書餘談

洪淳赫

一、東瀛文庫辯

筆者의 若干 收藏하여가지고 잇는 朝鮮學中心의 書籍을 家君이 命名하여 東瀛文庫라 하니 일즉이 關東八景의 하나인 江陵 鏡浦湖에 놀아 府使 韓光의 作인

十二欄干碧玉臺
東瀛春色鏡中開
綠波淡淡無深淺
白鳥雙雙自去來
萬里歸帆雲外落
四時客子月中杯
東飛黃鶴知吾意
樓上徘徊故不催

라는 詩를 絶讚한 나머지이엇다 한다。半島를 中心으로 東瀛이란두字를 떼어이름지엇다 한다。半島를 中心으로 關係隣近諸邦의 文化遺蹟의資料와 硏究業績을 모도아 보려는大願의 名으로 매우 適當한 命名이라 더욱 筆者가가장 큰關心과 敬意를 가저 그事業에 追隨코저 하는 東京東洋文庫의 名稱에비슷함이라

一、光文會朝鮮叢書

大正三年(一九一四)七月S都A校在學時 夏休로 歸省한나의눈에 歡喜의 好奇心을 가득히 던저준것은 R氏가渡米時에 맛기고갓다는 朝鮮光文會刊本 朝鮮叢書 三十餘冊이 엇섯다。家傳하는 古書가에冊안되어 늘애달버하던 나는이 叢書를 愛之重之하여 마지안엇다。或은 R氏가 成業後를 아와 차저나가게되면 어떠케 하나하는 조바심까지 낫섯다。

R氏는 아직도 歸國하지안엇슴은더러 그後나는 正式으로 委讓을바덧다。

後에알고보니 家親은 R氏의渡米旅費에 充當코저 某會公金을 融通한것이 그의不如意로 期限안에 갑지못하매그만 辭職치 안흘수업게되엿고 그餘波로 當時S專門學校에 入學하엿든나는 一學年도한學期를 남긴채그만退學치안흘수업섯스며 爾來三年三個月을 俸給生活에 시달리며人間苦의 試鍊을 맛보게 되엇섯다 그러나 언제나 나는R氏를 원망치 안코 고맙게생각한다 ー氏는 내게 朝鮮叢書를 주어 朝鮮學硏究에 뜻두게한 恩人임으로 後에缺本을 채워 完秩에가까운 朝鮮叢書를 만들엇슴은 勿論이다 六堂崔南善先生의 事業中가장큰功績은 이朝鮮叢書의 刊行일것이니 明治四十四年으로 大正四年에이르기까지에 約二十八種四十二冊二枚의 古典을 重刊하엿다。나의 所藏目錄을 列擧하여 一部 未藏者의 參考에 供코저한다。

(刊行順序不同)

三國史記	一冊
東國通鑑	六冊
燃藜室記述	六冊
同 別集	三冊
海東繹史	五冊
海東繹史續	一冊
大東韻府群玉	一冊
中京誌	一冊
林忠愍公實記	一冊
海東名將傳	一冊
東國歲時記(附洌陽歲時記、京都雜志)	一冊
東國兵鑑	一冊
海東續小學	一冊
尙書補傳	一冊
雅言覺非	一冊
訓蒙字會	一冊
東京雜記	一冊
碁譜	一冊
箕田遺稿	一冊
擇里誌	一冊
燕巖外集熱河日記	一冊
道里表	一冊
山經表	一冊
[illegible]論	一冊
高句麗廣開土王碑拓本一部	一枚

韓籍의印稅를 英赤十字에寄附

이것은 戰爭을因하여 희롱된 韓國一書上으로 損害보 이야기나氏의"나의韓國"은 英國에서는『허ー스트·엔드·블래켓트』社에서 出版되어 戰前에는 그印稅가적지안케 著者에게로건너갓다한다 그러나開戰以後에는 이러印稅의 海外支出을禁한 政府의 通商局으로서 禁止되엇다 그래서 出版社에서는그印稅는 英國赤十字와野戰病院協會에 寄附하겟다고 發表햇다

孫子講義 (五)

李昇圭

故로上兵은伐謀하고

(註) 張預曰敵이 비로소 我軍을 치려고꾀할때에 내가먼저 疑하야 그꾀하는 바를치면 敵이 반드시 그計劃이 破綻되여서 나에게 屈服하나니라 이것이 일은바『先發制人』하는法이라

(通解) 故로上兵은 꾀를치고

其次는伐交하고

(註) 敵의與國(卽敵과交好하는國)을 反間하야 敵을孤立시키는것이라

(例) 秦의兵이 六百里의地를 楚懷王에게 드려서 齊交를끈케하고 漢의酈何가 黥布의坐上에서 楚使者를 殺하여 項羽를끈케하고 曹操가 韓遂를더부러 馬首를맛대이고 閑談을하여서 馬超를疑心케함이 다伐交法을쓴것이라

(通解) 그다음은 敵의交遊를쪼너지고

其次는伐兵하고

(註) 李筌曰 敵이 臨陣하여 陣에對하는것이니 兵의下니라

(通解) 그다음은 敵의兵을 치고

下政은攻城이니

(註) 杜佑曰攻城屠邑은 軍政의最下니라 士卒의 殺傷과 兵器의損失과 糧食의消費가 만흔까닭이라

(通解) 下等의 政策은 城을치는것이니라

攻城之法은爲不得已니라

(通解) 城을攻하는法은 마지못할때에 할것이니라

修櫓轒轀하며具器械하여三月而後에成하고距闉이 又三月而後에已니라

(註) 櫓는彭排(방패)니 써머리를가려 矢石을막는 戰具라 轒轀은四輪車니 위에生牛皮로덥고 아래에 數十人을容納할만하니 사람이그속에서 機械를 運轉하야 城下에이르는것이니 卽攻城하는데쓰는 器械라 距闉은 흙을싸서 높은堡壘를만들고 그위에飛樓와雲梯를架設하야 敵의 城中을 되려다보아 그虛實을아는것이니 이것을距闉이라하고 或은墨攻이라한다

(通解) 城을攻하는器具를修理하고器械를가추어서 三個月이된後에 일우고 距闉이도三個月이된後에 다마치는니라 이러한戰具를完備하라면 時日이 만이걸려서 勞費가 莫한故로 不得已한境遇에 攻城한다는것이라

將不勝其忿而蟻附之면殺士三分之一이니而城不拔者는此ー攻之災也니라

(註) 忿은怒也라 蟻附는城에 肉薄함이 개암이가 나무에붓터올나가는것과가튼다함이라

(通解) 將師가 그忿을 이이

當選漢詩

滄 考選

秋柳 佳作之一

秋來憔悴强扶持
白下門前落照時
蟬集堤邊疎雨葉
鴉棲渡口冷烟枝
風流漸減驚衰晩
情緖應殘怨別離
第待靑皇巡縣日
好將春意展纖眉

安城邑東里 朴晩悔

評曰 頷頸兩聯意境雖好而但下字未穩

八道俗談註解 (三)

方鍾鉉

(三○) 고자쟁이가 먼저 죽는다

[解] 남의罪를 먼저 密告하는者가 罰은 敗하여自己부터 죽는다함이다

(三一) 고장난명

[解] 孤掌難鳴이라고함은 무슨일이든지 相對者가업스면 혼자서는 일이 成就안된다는말이다

[註]『旬五志』獨掌不鳴(言不較則不爭)『耳談續纂』孤掌難鳴一股難行(言事不可獨成)『松南雜識』孤掌難鳴用於與人爭『水滸傳』單絲不成線孤掌豈能鳴

(三二) 고제 처갓집 가듯

[解] 아모所用업는일에 아모目的업시 분주하게 往來함에譬함이라

(三三) 고진감내

[解] 苦盡甘來라고함은 무슨일이든지 苦가지나간後에樂이 온다함이라 卽 苦를 참으면 樂이 온다함이라

新刊紹介

▲新世紀 十一月號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新世紀社 振替京城一九三四四番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活泉 十一月號 發行所 京城府竹添町三丁目三五 東洋宣敎會聖潔敎會出版部 振替京城一一五五○番 定價二十錢

▲東亞の開展(新支那の史觀) 田中香苗著 發行所 東京市牛込區原町三丁目六一 ヘラルド雜誌社 振替東京一三八二一二番 定價二圓五十錢 送料二十二錢

▲運輸界 十月號 發行所 京城府花園町六一 運輸通信社 振替京城二○九七六番 定價五十錢

▲家庭之友 十一月號 發行所 京城府竹添町一丁目七五 朝鮮金融組合聯合會 振替京城三○○九番 定價十錢

▲詩學 第四輯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六七 詩學社 振替京城五○九五番 定價三十錢 送料三錢

△殉愛譜 朴啓周著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三一 每日新報社 振替京城六三六番 定價一圓八十錢 送料十五錢

▲朝鮮商工獎勵館報 十月號 發行所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三五 朝鮮總督府商工獎勵館內 朝鮮商品調査會 定價十錢

▲經濟警察公定價格表 李覺鍾著 發行所 京城府寬勳町一二三 文化書店 振替京城九七五六番 定價六十錢

新春懸賞文藝募集

新人登龍의絶好機

숨은天才여力作을들고나오라!

★短篇小說 ★戲曲 ★씨나리오 (四百字詰原稿紙 各五十枚內外)

一等 各一百圓 二等 五十圓 (短篇小說만)

★詩 (題目任意) 一等 十圓

★時調 (題 새봄) 漢詩 (題、春祝 押韻 自由) 一等 十圓

★童話 (四百字原稿紙 四枚乃至十枚) 童謠 (題目任意) 一等 童話 十圓·其他各五圓

★文藝評論 (四百字原稿紙 二十枚內外) 題目 新世代의精神 一等五十圓

應募期限 十二月十日

審査委員

短篇小說ー李泰俊·李箕永·李源朝
文藝評論ー崔載瑞·朴致祐· 詩ー鄭芝溶·
林 和·金起林·씨나리오ー安夕影·徐光霽
時調ー朴鍾和·漢詩ー李昇圭·童謠ー尹石重
戲曲·童話ー李軒求·金永壽

注意 皮封에新春文藝라쓰고、住所氏名을明記할것、作品은一切돌리지안흐며、入賞作의版權은本社에서所有함

朝鮮日報社學藝部

ランランチック

RANRAN BOTANICAL COSMETIQUE

란 란 직 구

高尙한것으로이름난油粧御料

十月對外國貿易

輸出三割九分增加

第三國輸入四割五分增

(財務局調査) 十月中에잇서서의朝鮮對外貿易은

輸出 二千二百八十九萬圓 ▲輸入 九百七十六萬圓 合計 三千二百六十五萬圓 出超 一千三百十二萬圓

으로서 前年同月에比하여 輸出六百四十萬圓(三割九分) 輸入 百三萬圓(一割二分) 合計七百四十四萬圓(三割)의增加를 示하엿고 一月以後累計額은

輸出 二億二千八百五十萬圓 輸入 一億三千百五十四萬圓 合計 三億六千六萬圓 出超 九千六百九十六萬圓

으로서이것을 前年同期에 比하면 輸出九千八百三十二萬圓(七割六分)、輸入 二千四百二十七萬圓(二割二分)、合計 一億二千二百六十萬圓(五割二分)이 各各增加되고 出超額 亦前年同期의四倍餘에 達한다 本月中主要國別의 消長을 觀察하면 輸出에잇서서는

▲滿洲國 一千七百九十八萬圓 前年同月比 六百四萬圓(五割一分)增 ▲關東州 百七十七萬圓 前年同月比 九萬圓(五分)增 ▲中華民國 二百十一萬圓 前年同月比 十九萬圓(九分)減 ▲圓域計 二千百八十七萬圓 前年同月比 五百九十三萬圓(三割七分)增 ▲第三國 百一萬圓 前年同月比 四十七萬圓(八割七分)增

으로서 即對圓域輸出은戰時價格統制에 基한 許可制의擴大強化에따러 米、小麥粉、砂糖、綿織物、[세멘트]、鑛油、고무靴等의 輸出禁止乃至制限의不振이엿지만 水産物、스·파織物、林檎、鰯油、木材、鑛石、紅蔘及事業類等이 依然出荷好調를 持續하고 그中에도 水産物은 [illegible]

그리고 第三國으로부터의 輸入品인 牛皮、木材等은 [illegible]

一、輸出 (單位千圓)

(가)對滿、關、支輸出主要品

品名	十月中輸出額	前年同月比增減(△)
水産物	三、〇一	一、八六
機械類	一、公	七宝
스·파織物	一、三	一、七
林檎	一、三	一、一
木材	九宅	九宅
鐵道客車及貨車	三	△ 三

[illegible]

配給票는잇서도 現品入手는困難

鐵鋼材入手難深刻

鐵鋼材의 配給不圓滑은 最近에이르러 愈然加重되어 朝鮮內關係로도 機械工業、鐵工業方面의 原料材料入手難은 深刻한것이잇서 今後의 推移如何는 操業短縮乃至 一部休業의 脅威가 豫想되어 形勢가 憂慮되고잇다 이것은 歐洲大戰以來 特히鋼材의配給이 不圓滑하게되어 配給數量가지고잇스면서 現品入手難의것이 厖大한數에達하여 內地關係로는 이數量이 數十萬톤이라 하고 朝鮮에서도 이入手難이 深刻하다 다시 이와同時에 所謂鐵의入手難도 豫想以上이고 다시 하다

米穀低利資金 三千萬圓要求

今年의 米穀低利資金 三千萬圓을 收穫減少를 理由로 取入을中止키로되리라고 傳하고잇스나總督府로서는 米穀金融의 重大性에鑑하여 例年대로 低利資金融通을 受할方針下에 目下大藏省과 折衝中이라한다 融通金額도多少 減少는될形勢이나 總督府로서는 어디까지던지 例年의融通額三千萬圓을 要求할方針으로서 느저도 年內에는 受入케되리라한다

圓域輸出價格 殖產局見解

價格等統制令에關한 總動員發動에依하여 圓域向(滿、關、支)의輸出價格도 九月十八日價格이適用된다

[illegible]

鑿岩工養成所

實習生募集

總督府鑿岩工養成所에서는 目下第五期實習生을 募集中인바入所願書의마감期日은 十一月十日로 切迫하엿스므로 同所에서는 志願者는 此際에 至急히願書를 提出하도록 希望하고잇다 또入所手續은 京城府弘濟町의 同所에 照會하라한다

普銀新分野

長期金融進出

米穀資金放出에 普通銀行이進出하는傾向이 나타나게되엇는데 다시 長期乃至定期貸 組合乃至圓滑貸付等의 長期金融中比較的短期인것의分野로 進出까지되는傾向이보인다

이것은 最近의市中金融緩慢과 低金利에基하여 長期貸는從來보다 그資金코스트가 高位이므로 그放資를에빠진 普銀側은그低利를利하여 着着長期貸中의償還期間의 短期物乃至此等 一時的借入金等에 進出하여 最近의實例론 水産組合關係等에 이러한것이 나타난모양이다

普銀의 立場에서보면 이것은 分野開脫이라할것인데 當面의銀行의業務分野는 過去의 常識으로 律할수업스므로 이新動向은 一律로 批難할것이 아니고 普銀에 新分野를 供給必要가잇슬것이라한다

漢銀江華支店 四日부터開業

漢銀의江華支店은 開設準備中이던바 드디어 十一月四日에 開業하기로 決定하고 野田頭取는

旱害와貯蓄

伊森貯銀頭取談

南鮮五道의 支店所在地를主로하고 若干의代理店을 둘아본바 그것은 大體豫想과같이 左와갓치말한다

忠南、慶南北、全南北五道의旱害와 金融關係를 視察하고 三十一日 歸京한伊森貯銀頭取는 如

[illegible]

閔奎植氏의 午食스케듈

氏는『벙게』(閔家)財閥의 前衛일께다。英國的인 紳士지만 漫畫化한대도 협상기진『좋을』은 될수업는 아리잘직한 몸집이다。行動과 말소리까지부드러워 紳士風이 도는듯하나 鋭敏한눈에 相對를 警戒하기에 좋게 警戒하기에 흐고잇다。氏는 朝飯을 폐하고 一日二食主義라한다。

『實業에잇습니까』

『아니요』『점심을 때에서 자시는일도 업게군요』

『네 은행중역회무슨회 무슨회해서 一週日점심은 스케줄이확재어잇습니다』

『빈자리로 내대도 상당할걸요?』

『뭐 심원도못될걸요』

美食을 取하는것이 아닌 平凡한『점심먹자會』일망정 一週間에 一개月치고본다면 좀자바 日本銀行에서 發行하는 最大의兌換券 한張이한 꺼다。 깎두기 냄새를 피우는 변도가 가처지 중울 엉게 세월을고다 나는 平社員 으로서 重役이못하는 三食을하는다고 한번 히쭉을 할때가잇을까?

東拓營農法 根本的改善

東拓에서는 일찌기 朝鮮內農場經營의 一大改革에關하여 支社農業課의손으로 愼重硏究中이던바 最近 如左한 成案을어더明年度부터 相次的으로 實行에 옮기기로되엇다는데 어것은

一、有畜農業의 徹底的獎勵=社有地農家에는 一戶一頭를 目標로 牛의增殖을 圖함

二、小作農子弟의中堅人物養成=小作農子弟中에서 中堅人物을 養成하여 農事經營의 基幹으로함

三、營農法의 改善指導=特히施肥改善、耕種改善을 徹底的으로指導함

等을 中心으로하는것으로 農者沙里院에 黃海農場을 設定한바 鐵路하여 各地에 農場制를 擴大할 豫定이라한다

朝鮮海運新統制

運賃据置、配船合理化

海運新統制와 總動員法에 依하여 朝鮮近海海運에도 各種運賃의 全般的据置維持와 配船의合理化統制가 各各相次的으로 實現케되엇다

一、運賃關係론이미 自治統制의時代에서 自制에들어오고 重要物資인 朝鮮米、魚油肥의各運賃을 爲始하여 各各 据置維持中인바 鐵鋼하여 各種運賃에對해서도 全面的으로 据置를 實行하는 同時에 一方運賃其他는 一切排除하게된다

二、船腹의 合理的配船에 關해서는 定期船의 朝鮮航路는 第二次的으로되는데 旣報대로關係遞信局에서 統制配船에繼續하여 保山의石炭、利原의鐵等에도各各統制配船圖를 着起할것으로 船腹의計畫的調整이

實現될것이다 그러나 朝鮮으로선 本年度는 朝鮮米移出의 著減이 豫上되고自然이에伴할 船腹需要가적어 이統制의打擊은 比較的輕微할것이라한다

○田島商船專務羅津視察=【羅津電話同盟】大阪商船田島專務는 關田東洋課長을同伴하고 三十一日淸津으로부터羅津에와서 視察을마치고大和호텔에投宿、一日午前八時發 國際列車로新京에向하여 二日哈爾賓을爲始하여 奉天、營口方面을視察、十日大連에 關阪間豫定인데同氏는 北朝鮮을처음보고 港의繁榮과 市街地計畫의 雄大를 稱讚하고 五年十年의 將來를 考慮하여 優秀船의配船을 圖하겟다고 記者團에말하엿다고

日銀券二十八億臺突破

鮮銀券도三億五千萬圓肉迫

一日에發表된 日銀兌換券發行高는드디어 二十八億圓을 突破하여 前日보다 二千三百萬圓增加인 二十八億六百萬圓으로되고 鮮銀券도最高記錄을告하여

前日에二百十七萬圓의增加인 三億四千九百餘萬圓으로 逐日記錄을更新하고잇서 內外普通한 紙幣의 大膨脹은極히 注目되고잇다

瓦斯用石炭確保

京城電氣會社에잇서서의 瓦斯節約問題에對하여는 京電重役間에도 相當히困難을알고잇는데 總督府의斡旋으로 九州及北海道炭도 配定대로 入手할수잇게되고 또北支의井陘炭의 初輸入이 京電에도 配定되게되므로 玆에瓦斯節約問題도 解消하여 重役은 愁眉를열게되엇다한다

端川막네開發

輸送計劃進捗

朝鮮 막네사이트의 端川막네開發의輸送路問題는 그後同社幹部、總督府殖産局及 鐵道局間의緊密한 連絡下에着着 準備를進行하고잇던바 마침내 輸送路는急轉直下로 如左히 積極的으로具體化케되엇다

一、鐵道局前鐵道課長 鈴木敏氏는 近日同社建設部長으로서入社한바 同氏는來十二月 同社總會에서 新理事에就任코 鐵道鮮設을擔當

二、目下豫定線(約六十五粁)에는鐵道局에서 調査班二班을派遣中이던바 三月末까지에는實測을 終了함

三、資材關係其他는 目下資源課

方面과 折衝中인바 同社當局者로선 明年下期中에 大體過半을 完成코 十六年度에는出鑛開始의 方針

이것은 마그네슘의 開發뿐만아니라 東北地帶의 石其他의 有望資源도 目標로하는 積極的進出한것이라한다

常務內定

大興貿易株式會社에서는 十月十三日 臨時總會를開催하고 取締役 監査役 各一名選任의件을 附議할터인데 取締役에는 加藤常夫氏(前三越京城支店長)를選任하여 常務取締役이되게하고 監査役에는 殖銀山口理事를 選任할豫定이다

糧穀統制實施

關東州에서도

【大連卅一日發同盟】關東州當局에서는 卅日附 州內糧穀取扱業者를招致하여 包米、高粱、西貢米等의輸入及 配給統制를 實施하는件에對하여 協議하엿다 그結果 大手側 卅名으로써 糧穀實業組合을 組織하고 滿洲國의統制實施와 呼應하여 同統制方式을 實施키로 決定하엿다 右主要穀類의 關東局今後의 移入高는 年約十六萬屯 同地場消費約二十萬噸 合計三十六萬噸 가량으로 그州內配給及 物價統制에對하여는 追後決定發表하기로되엇다 또州內消費糧穀은包米十萬噸 高粱四萬噸 西貢米二萬噸이다

朝郵總會

朝鮮郵船에서는 二十七日午前十一時부터 定時株主總會를 同社에서開催하고 森本社長司會로

一、第二十八期前半 營業報告、決算書類承認、利益金處分案決議件(七分配當照會) 二、取締役、監査役 任期滿了로 監査役 香椎敏夫、監査役 岡田永太郞氏 辭任缺補欠選擧件、四、前取締役 役一名選擧件、四、前取締役 役 渡邊榮氏 同堀新氏 同香椎 夫氏 前監査役 岡田永太郞氏에게 慰勞金贈呈件

을附議하여 決算案을 原案대로可決하고 補缺取締役으로써 出島正雄氏(大阪商船專務)同監査役 神田外茂夫氏、松崎寬雄氏를 選任한바 利益金處分案은如左하다

當期利益金 八三四、二九、前期繰越 一四三、一六 合計九七、四五、法定積立 五〇、〇〇〇 船舶特別償却 三五〇、〇〇〇 役員賞與 五五、〇〇〇、配當年七分 二二七、〇〇、次期繰越 一四四、九五八

今回同社의利益金은 二百四十萬三千三百圓에 達하엿스나 償却社內保留에 百五十九萬八千圓을計上하고 公表利益은 利益金의三分一로 되엇다

◆第二回拂込徵收=朝鮮郵船에서는 新造船資金과 新設의日本海汽船에 出資키爲하여 新株第三回拂込 三百五十萬圓(新株未拂込二十五圓券額)의 徵收를 內

大藏省預金部 投資範圍擴大

【東京電話同盟】大藏省預金部資金의運用에關해서는 同資金의重要部分이 郵貯로서되는 特殊事情에鑑하여 預金部資金 運用規則에잇서서 有利確實을 條件으로하고잇서 그投資分野를 嚴重히規定하고잇서 從來外國法人의 發行한 社債買入은 預金部投資의權限外에잇더바 大藏省에서는 今回日滿支을通하는 生産擴充達成上에서 滿洲國法人으로 同國政府元利拂保證付의 確實한社債에限하여預金部投資範圍內에 包含시키로同規則을 改正코저 過般來日滿兩國政府間에서그實現에

關하여折衝을하고잇던바이지음드 디어兩國政府間에 諒解가成立되 엇스므로 卅一日에開催된 預金部運用委員會에서 右趣旨에基하여 우선『滿洲國政府保證滿洲重工業開發會社社債買入의件』을 附議決定하고 다시 近近 이에關聯하여 預金部資金運用規則의 改正을 公布實施할豫定이다

更生水組組合費

賦課基準查定

更生水組組合會에서는 去二十九日午後一時부터 委員會를 開하고 組合費賦課의 基準으로할穀價及肥料代를 如左히查定하엿다

正租價一斤 (仁川穀物市場) 八錢八厘

肥料代 一石增收當 二圓八十錢 또 이것을前年에比하면 正租代는 七厘引上 肥料代는据置

賀田商議會頭 引退難免?

近間臨時議員總會開催

賀田京城商議會頭는 旣報대로 來九日 東畜解散에依하여 失格하기로되는데 賀田氏도이와同時에 隱退하겟다는 希望을말하고 잇스므로 後任會頭問題를圍繞코여러가지所說이잇는바 議員의一部에는 賀田會頭의留任을 希望하고잇는側도잇는모양이다 그러나 商議定款에는 五分之一即六名의欠員까지는 補欠選擧할必要가업다하고잇스므로 一部에서는補

『大興貿易會社』 在蒙朝鮮人을指導

大興貿易株式會社에서는 今回蒙疆地方視察을兼하여 在蒙朝鮮人指導를 目的으로 同社長官林泰司氏가 加藤常務以下 即實業의專門家四人을同伴하여 二十八日午後四時二十五分 京城驛發로渡蒙한바出發에앞서 如左히말한다

約二週間의 豫定으로 張家口 大同包頭 厚和等 蒙疆主要都市를 視察하겟다 即朝鮮物資의 蒙疆向及 朝鮮의蒙疆物資를 詳細히調査하는一方 同行專門家는 蒙疆에잇서서의 小賣及 卸賣의物價를 調査하기로되엇다 即蒙疆地方에는 物價에 一大基準이될것이다 또蒙古地方에는 多數의 朝鮮人이 在留하고잇는데 此等은 大槪가 不正業을經營하고 거의 流浪生活을하고잇는 狀態인바 總督府의方針에따라 今回 張家口出張所에 事業部를 新設하고 朝鮮人을指導하여 鮮蒙親善을 圖할터이다

米期 新規賣買 中止

前場閑散

今月부터는 新規賣買中止로 先限이업고 當中만이 立會되바 六節에 當限이 三十六圓〇三錢을 부친外에는 全部賣買가엄서 場을止하엿다

▲東京國債 ▲甲號五分一〇九、五〇▲米貸五分半四〇九、〇〇

朝取米豆部 前場만形式立會

朝取仁川米豆部에서는 十一月一日부터 新規賣買는 中止되고 前場만 形式立會하며 後場은 定例休會키로 되엇는데 建玉의解合은 客側과 交涉이不調이어서 아즉 成立되지안엇다한다

株式 鐘紡高로 堅調

前場堅調

今朝는 朝新不變인 二十一圓三、東新三低인 五十四圓二、滿業三低인八十二圓四、鐘紡百七十七圓八에 寄付된後 鐘紡은百七十九圓三의 高價로 買進되어이에따라 東新도百五十五圓丁의 高價를示한後 結局東新百五十四圓八、滿業八十二圓五、鐘新百七十六圓八에 大引

後場小低 後場은 東新五低인 百五十四圓三、鐘新八低인 百五十六圓丁에 軟調寄付後同調裡에 推移하엿다

今日의市勢 一日

寸鐵

▼…最近의 物資不足은 想像以上의것。

▼…內外地를通하여 配給票는잇스나 現品은 入手할수업는것이 恨事。

▼…特히朝鮮內生産에 잇서서의 作業은 一層不足을 缺하엿스니만큼 脅威는 一層多大。

▼…民需는써犧牲이 當然하나 生産力擴充에 支障되니거 정。

▼…東拓은 營農法改善을 企圖、國策會社인지라 普通地主와는 달너야할것은 勿論。

市場六感

㊑…今日新市는鐘紡高를主로 全體가 若干活況을呈示▲或은 이것을 機로하여 靜息中에잇던 雜株買가 再發할形勢▲그러나 閑散物株는 如前히 小市勢觀이 有力하여 上으로 百五十七圓 下로百五十二圓을보고잇는모양▲東新은休息이길수록 一日活動을 開始하면 猛烈한것이잇다고東新常態▲伊太利가 親獨을 明히하면 그 右를 決定할지도 모른다고▲左右間에 色彩를 明히하면 그만큼 情勢에도 轉換이잇슬뜻

正米 沈默 出廻殆無

仁川 地方에는 相當히新米가 出廻되엇다는 風說이잇스나價位關係로 依然히 米의配給이 不圓滑하여 市中에는 한가마니도 보이지안코 單只不變이라고할뿐으로 沈默商狀을 繼續하고잇다

釜山 小口이나마 近鄕으로부터 出廻되나 都賣側사이에서消化되어 市中에는依然히出廻되지안허 氣配도 거의不透明이며 內地의 大上商를 悲觀하고 一層 氣迷되어 今後의推移를注視하는 모양이엇다

大邱 市中은全혀商人의出入이드믈고 都賣側은 東地로活動

前途樂觀氣分

新支那中央政權은 西尾總司令官과 汪兆銘의 會見으로 拍車를加하게되어 그正式成立도그다지멀지안흔 將來에 實現될것이고 또米國의中立法 改正을 機로하여 對米關係는 去來減退伏의必要가 느기게 되엇는데伊太利의 態度가 依然曖昧한等 諸材料가 錯綜된 狀態에잇다 그러나 今朝新甫는 鐘新、鐘紡高로 一般的으로 色味가좋아 短期東新도 百五十圓臺의 高値를示하엿스나 아직動搖는未到이므로 仕手筋은 雙方이 모두 頗除하여 一向重는 市場의 片寄만을 보아도 形勢를 觀望하고잇스다 勿論明年度豫算의 片寄한 政府支拂이 放出될 것은 分明하고 十月末日의 日銀兌換券은 二十八億圓에 肉迫한 大膨脹을 告하고잇는것으로 보아 前途樂觀 氣分만은 依然한것이잇다

鐘紡高原因

【大阪電話】 東西株式市場에잇서서의 鐘紡高原因은 最近李絲高로 絹紡側으로보이는 旣의買進에 依하것이다

現物強堅

新甫의好調에따라 現物도一般으로 強調를 示하엿는데 滿洲煙草物은 配當落株가만헛스나 配當滿洲煙草는 六十二圓五、北支煙草는 四十五圓으로二圓高를示하엿다 또滿洋捕鯨은 油盛膽으로 業績의良好가 豫見되어 四十六圓까지 買進되엇다

物價

木浦 正租는 八百가마니나 出廻되는 新米도 出廻되엇스나 依然히 보합되엇스나 市中에는 如此한 一般 乾燥에 基하여 出廻 되리에 停滯 하여

群山 天候는 出廻도는 新米가마니 도 出廻되지안코 都賣間의 商談으로 繼給하여 市中에는 商談도 停滯 안되게 不透明하고 全村서지못하고 不明하고 稀薄化를 希望하고잇다

小麥軟調

小麥은 沙里院은 三十錢低인 三十一圓一、新麥은 二十錢低인 三十一圓三 二十錢으로 軟含商狀을 呈하엿다

白胡麻低落

白胡麻는 新品入荷로 低落하여 奉天八圓城이 五十一圓二〇이되엇다

海外經濟 (三十一日)

[illegible]

銀行券 (三十一日)

[illegible]

金利 手形交換

[illegible]

鰯油粕 麥粉

[illegible]

金銀價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正米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illegible]

綿絲布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今日財界一日

[illegible]

重石·水鉛 金銀買入 三昌鑛業所 京城南大門通二の十一 (朝鮮信託前) 電話本局三〇二五番

株 三原取引店 京城府黃金町 案內進呈

三國志 【2】

韓龍雲 譯 熊超 畫

桃園結義와 黃巾亂(二)

[illegible]